

## ICID 2001 서울대회

### 52<sup>nd</sup>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and 1<sup>st</sup>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CID

정 병 호\*  
Cheong Byeong-ho

#### 1. 서울대회의 유치와 준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제52차 집행위원회의와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52nd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and 1<sup>st</sup> Asian Regional Conference)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1993년 제15차 헤이그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총회에 참석하였던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Korean 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조홍래 회장은 1998년 회의를 현지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먼저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집행위원회의 도중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2001년 아시아지역회의와 함께 제52차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시아지역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회의로 두 대륙이 합쳐 하나의 지역회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단은 두 대륙간의 관개배수 관행이 상당히 다른 점을 들어 아시아지역회의와 아프리카지역회의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4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개최되었던 제45차 집행위원회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

의 분리가 확정되고, 1996년 제16차 카이로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ian Regional Working Group)가 창립되어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카이로의 제47차 집행위원회의에서 2001년의 제52차 집행위원회의 유치를 신청한 한국과 미국이 경합을 벌여 서울대회가 확정되었다.

1996년 9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 카이로의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47차 집행위원회에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KCID의 유치전략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맨투맨식 득표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미국과의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개인적 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출발 전 이미 KCID 사무국을 통하여 ICID 사무총장 및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각 회원국 대표들에게는 서신으로 지지를 부탁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대표단 예비모임으로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 KCID 활동을 홍보할 리플렛(Leaflet) 제작, 우리 나라의 관개배수 현황과 사업홍보 전시물 제작, 기념품 마련, 전시도서 및 비디오 확보, 회의유치 연설문 작성 등 출발 전 수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다.

당초 우리 대표단의 전략은 집행위원회에서 미국 국가위원회와 표대결을 하기보다는 양국 또는 ICID 본부와의 사전 조정을 통하여 미국

\*ICID 2001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bhcheong@karico.co.kr)

이 유치신청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관개배수위원회 대표인 Dr. Larry D. Stephens는 집행위원회 하루 전날 미국은 이미 조직위원회까지 구상하여 회의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철회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결국 9월 19일 오후 집행위원회에서 표대결에 의한 개최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각국의 선택이 끝나고, 개표책임자로 선정된 일본의 나가하라 대표가 개표를 하는 동안 우리 대표단의 시선은 모두 그의 손끝에 머무르고 있었다. 두 곳으로 분류되는 표 묶음의 높이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의 시선은 높게 싸이는 쪽으로 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개표 결과를 넘겨받은 Abdullah 회장의 선언, “the majority goes to Seoul Korea...”, 그 다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수소리, 축하인사, 그리고 이근모 대표단장의 감사를 표하는 연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1996년 카이로 제47차 집행위원회에서 2001년 제52차 집행위원회와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를 서울에 유치한 KCID는 1997년부터 ICID 2001 서울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수집과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던 기간이었다. 1997년 옥스퍼드 제48차 집행위원회와 1998년 발리 제49차 집행위원회 및 1999년 그라나다 제17차 총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각종 행사의 준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세션별 회의진행 상황을 체크하였다. 서울대회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회의준비 상황을 ICID 상임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하는 한편, 서울대회 안내서와 Call for Papers, 우리 나라 관광안내서 등을 배포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금년 회의를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어느 ICID 회의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었던 “ICID 2001 서울대회 조직위원

회”를 출범시켰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멀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42개 회원국과 8개국제기구로부터 274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참석하였던 서울대회를 준비하기에는 11개월의 시간이 결코 넉넉한 기간은 아니었다. 조직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대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사진행을 자문해 주신 위원님들은 물론 학술, 재정, 수송, 전시, 홍보, 행사 팀 등 6개의 실무 워킹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해주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서울대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ICID 2001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전임직원을 파견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워킹팀장을 겸무발령 하였다. 또한, 워킹팀별로 실무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대회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조직위원회는 협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어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준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였으며, 워킹팀장 회의와 워킹팀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회의준비는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조직위원회의에서는 워킹팀별로 추진된 사항을 점검하고, 회의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제회의 전문대행업체(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도 선정하였다. PCO에게는 국제회의 준비의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인 등록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서울대회 개최기간이 8월에서 9월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 행사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은 학생들의 강의와 중복되어 수많은 기술분과위원회를 수용할 소규모 회의장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식 제공을 위한 대형 식당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들로

작용하여 대학측과 여러 번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결국 행사장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대회 5일전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뉴욕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약 100여 명의 참석 예정자가 참가를 철회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회 조직위원회는 ICID 본부 사무국과 각 국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43개국으로부터 온 540명의 관개배수 전문가, 교수, 정부대표들로부터 학술 및 행사 진행 면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아시아지역회의가 병행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ICID 2001 서울대회는 그 동안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KCID 단체 및 개인 회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기대하며, 지난 8년 동안의 노력이 낳은 결실을 요약하였다.

## 2. 대회 개요

「우리 나라 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개배수 분야의 경험 및 기술을 세계 각 국에 전파」하고 「21세기 식량자급 및 농업개발사업의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ICID 2001 서울대회」의 대회기간 및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회명 :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 (52<sup>nd</sup>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and 1<sup>st</sup>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CID)

- 대회 기간 : 2001. 9. 16(일)~21(금)
- 회의 장소 :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
- 주요 행사내용
  - ▶ 제 52차 ICID 집행위원회(IEC) 회의
  - ▶ 전략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회의
  - ▶ 환경분과위원회 등 27개 기술분과위원회
  - ▶ 제1차 아시아지역 회의 (ARC : Asian Regional Conference)
  - ▶ 워크숍(Workshop) I, II
  - ▶ 특별 워크숍 2개
  - ▶ 전시 (Exhibition) : 11개 업체 20개 부스
  - ▶ 친교행사 (Social Program) : 환영리셉션, 송별만찬 및 민속공연
  - ▶ 기술견학 (Technical Tour) : 새만금 간척, 대호친환경, 충주 TM/TC 지구
  - ▶ 동반자 투어(Accompanying Persons' Tour)
  - ▶ 회의후 관광(Post Conference Tour) : 제주, 경주, 설악산 코스
- 주 최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주 관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후 원 : 환경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공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대담회, 한국수자원학회
- 참가 인원 : 총 540명(외국인 274, 내국인 266)

## 3. 제52차 집행위원회

### 가. 집행위원회

제52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IEC: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는 Dr. Bart Schultz 회장과 Dr. C. D. Thatte 사무총장, 권순국 교수 등 9명의 부회장, 한국대표인 허유만 KCID 회장 및 43개 회원국 9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장인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 Grand Ballroom에서 9월 21일 오전 9시에 개최되어,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집행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중요한 의결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제 1 : ICID 회장 Dr. Bart Schultz 개최연설
- 의제 2 : ICID 정책과제 “연구 및 기술전파” 발표
- 의제 3 : 사무총장 업무보고
- 의제 4 : 신규회원 가입승인
- 의제 5 : 경영위원회(Management Board) 보고
- 의제 6 : 정책기획상임위원회(PCSPOA) 보고
- 의제 7 : 재정상임위원회(PFC) 보고
- 의제 8 : 기술상임위원회(PCTA) 보고
- 의제 9 : 제2차 및 제3차 WWF 관련 심의안
- 의제 10 : 댐개발에 관한 ICID 입장
- 의제 11 : 정관 및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보고
- 의제 12 : (i) Hassan Ismail 교수 기념상, (ii) 물절약상(WatSave Award)
- 의제 13 : 회의 개최지 결정 심의
- 의제 14 : 부회장 선출
- 의제 15 : 기타 안건
- 의제 16 : 폐회 연설

사무총장 Dr. C. D. Thatte는 2000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던 제51 집행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ICID 웹 사이트 보완 등 지난 1년 동안의 주요활동을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집행위원회가 열리기 전 미리 가입신청을 한 국가는 없었으나 회의기간 중에 신규 가입신청을 한 에스토니아(Estonia) 국가위원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물절약 과학기술상, 물관리 혁신상, YPF상

으로 나누어 시상한 WatSave 시상에서 우리나라의 김태철 교수가 물절약 기술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 관개배수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물관리 혁신상에는 중국의 Gu Yuping 교수가, YPF 상에는 인도의 Sanjav M. Beosare가 각각 수상하였다. ICID 물절약상의 상금은 각 부문별로 US\$1,500로, 금년에는 서울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KCID에서 총 US\$4,500을 후원하였다. 2002년 물절약상은 제18차 총회를 주관하는 캐나다국가위원회에서 후원할 예정이며, 상금은 각 부문 US\$2,000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1년 Dr. Hassan Ismail 기념상은 이집트의 Dr. Tarek A. Ahmed와 수단의 Mr. Ahmed Adam Ibrahim이 수상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4년 3월 제2차 아시아지역회의 유치를 신청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주제는 Irrigation in the Total Catchment Management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결정된 향후 회의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 ▶ 2002년 제53차 집행위원회 및 제18차 총회 .....캐나다 몬트리올
- ▶ 2003년 제54차 집행위원회 및 제20차 유럽지역회의 .....프랑스 Montpellier
- ▶ 2004년 제55차 집행위원회 .....러시아 Moscow
- ▶ 2004년 제2차 아시아지역회의 .....오스트레일리아
- ▶ 2004년 제1차 아프리카지역회의 .....이집트 Cairo
- ▶ 2005년 제56차 집행위원회 및 제19차 총회 .....중국 Beijing
- ▶ 2006년 제57차 집행위원회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총 9명의 부회장 중 이집트의 Dr. Dia El-

Din Ahmed El Quasy, 미국의 Mr. Franklin E. Dimick, 스리랑카의 Ing. L.T. Wijesuriya 등 3인의 임기가 금년 서울대회를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3인의 신입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란, 중국, 일본, 멕시코, 이란 등 5개국에서 입후보하여 일본의 Dr. Shigetaka Taniyama, 이란의 Dr. Nairizi Saeed, 멕시코의 Ing. Manuel Contijoch Escontria가 선출되었다.

그 이외에 2005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ICID 제19차 총회의 주제가 “Use of Water and Land for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결정되어 금년 서울대회의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댐개발에 관한 Task Force Team이 설립되었다. 또한, ICID는 IWMI가 주관하는 “물(Water), 식량(Food), 환경(Environment)”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에 9개의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나. 상임 및 기술분과위원회

2001년 서울대회의 세션별 회의 수는 어느 때보다 많았다. 환경영향분과위원회 등 20개 기술분과위원회(Working Group), 아랄해위크팀 등 3개 워크팀(Work Team), 기획정책상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IPTRID 자문위원회, ICID회지 편집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댐건설 대책과 WWF 준비를 위한 Task Force Team 등 5개 TFT, 일본 국가위원회 세션을 비롯한 5개의 임시 세션 등 아시아지역학술회의와 워크숍을 제외하더라도 40여 개의 크고 작은 세션이 6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기술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세션별 회의 결과는 매일 영어와 프랑스어로 정리하여 집행위원회 1~2일 전에 열리는 해당 상임위원회, 즉, 기획정책상임위원회(PCSPOA), 기술상임

위원회(PCTA) 및 재정상임위원회(PFC)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회의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해 거쳐 상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안으로 상정하게 된다. KCID는 참석이 가능한 모든 단위 세션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4. 학술회의

ICID 2001 서울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통한 학술활동을 크게 나누어 보면 아시아지역회의(Asian Regional Conference)와 워크숍으로 구분되며, 그 이외의 활동으로는 서울대회를 기념하여 발간한 출판물이 있다. 아시아지역회의는 “농업(Agriculture), 물(Water), 환경(Environment)”을 주제로 100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워크숍 I (Agricultural Based Development in Tidal Swamps and Estuar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은 27편의 논문이, 그리고 워크숍 II (Wastewater Reuse Management)는 25편의 논문 등, 총 15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논문은 다시 부제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었는데, 아시아지역회의와 워크숍 II는 각각 4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모두 9개의 세션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발표되

〈표-1〉 발표 논문 현황

(단위: 편)

구분	계	아시아지역회의	워크숍 I	워크숍 II
계	152	100	27	25
Oral	85	55	14	16
Poster	23	10	12	1
미발표	44	35	1	8

었다.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주제는 1997년 9월 9일 영국 옥스퍼드(Oxford)에서 개최된 제 48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Asian Region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로

정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999년 9월 11일 스페인의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 회의에서 주제인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와 4개의 부제가 확정되었으나 제출된 논문의 심사와 분류 과정에서 부제를 최종 수정하였다. KCID는 2000년 4월 Call for Papers를 발간하여 각 국가위원회와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 배포하고 초록을 모집한바, 24개국에서 162편이 접수되었으며 초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7편이 탈락되었다. 합격된 155편에 대한 논문 수집결과 100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논문의 초록은 별도의 요약집으로 발간하였으며, 전체 논문은 CD-ROM으로 제작하여 서울대회 기간 중에 전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원고 접수 편수는 다음과 같다.

- ▶ Irrigation and drainage in the farmland : 45편
- ▶ Automation and real-time monitoring system : 16편
- ▶ Irrigation water quality, water policies and environment : 32편
- ▶ Flood damage control : 7편

ICID 환경분과위원회와 KCID가 공동 주관하였던 워크숍 I (Agricultural Based Development in Tidal Swamps and Estuar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의 주제는 1999년 9월 11일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원고 접수 후에 내용에 따라 다소 수정하였다. KCID는 2000년 4월 Call for Paper를 발간하여 각 국가위원회와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 배포하고 워크숍 논문 초록을 모집한바, 12개국에서 52편이 접수되었으며, 초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모두 합격되어 집필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제출된 논문은 27편이었다. 제출된 논문의 초록만 별도의 요약집으로 발간하고 전체 논문은 CD-ROM으로 제작하여 서울대회 기간 중에 전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원고 접수 편수는 다음과 같다.

- ▶ Technical aspects : 14편
- ▶ Socio-economic aspects : 6편
- ▶ Environmental aspects : 7편

워크숍 II의 논문은 영국 월링포드 수문연구소의 Dr. Ragab Ragab 가 주관하고 최종 원고 25편을 송부하여 이를 책(Proceedings)으로 발간하고 CD-ROM에 수록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논문의 분포는 Technology 7편, Environmental impacts 7편, Soil- Crop-Water management 7편, 그리고 Planning and institutional aspects 4편이었다. 부제 중 Health related issues와 Cost effectiveness에 해당하는 논문은 없었다.

위의 두 워크숍 외에 연구논문의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두 주제에 대하여 별도의 워크숍이 열려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국제물관리연구소(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와 ICID 관계시스템개발관리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Systems)가 서울대회가 임박하여 추가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주관한 워크숍(Workshop on Irrigation Maintenance)과, ICID 배수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Drainage)가 주관한 배수 워크숍 (Internal Workshop on Drainage Needs)이 개최되었다.

## 5. ICID 서울대회 기념책자 발간

금년 서울대회를 기념하여 KCID에서 발간한 “아시아의 쌀농사(Rice Culture in Asia)”

와 “한국 농업수리사(History of Irrigation in Korea)”는 국내 최초로 고유한 우리 나라의 쌀 농사 문화와 관개배수 역사를 집대성하여 영문으로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권의 귀중한 책이 영문으로 발간됨에 따라 대회에 참석하였던 각 국의 전문가를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우리 나라 농업의 발자취와 전통에 대한 시야를 크게 넓혀 주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시아의 쌀농사(Rice Culture in Asia)”는 1998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49차 집행위원회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RWG: Asian Region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Rice-paddies에 관한 책자를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를 기념하여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발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KCID는 이를 수락하였다. 1999년 9월 11일 스페인의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회의의 ASRWG 회의에서 새로 발간되는 책에는 아시아 각국의 Country Report 및 Rice-paddies에 관한 한국의 경험 등을 수록하도록 논의되었다. 2000년 10월 22일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제51차 집행위원회회의의 ASRWG 회의에서 이 책자의 발간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고 집행자 대표인 ICID 부회장 권순국 교수가 발간계획을 보고하였다.

“한국 농업수리사(History of Irrigation in Korea)”의 발간은 ICID에서 History of Irrigation in Eastern Asia를 발간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원고를 요청한바 있어, KCID는 이를 한글로 작성하고 미국 어번대학(Auburn University)의 유경학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완성하였으며, 이 책자 발간의 주관 국가위원회인 일본의 ICID 국가위원회에 송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완성됨에 따라 2001년 9월의 ICID 회의 시 각국의 참가자에게 한국의 관개역사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 6. 전시 및 행사

### 가. 전시

국제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전시(Exhibition)는 전문적인 전시회(Trade Show)나 박람회(Fair)와 비교할 때 형태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성격 또는 회의의 주제에 따라 전시의 방향이나 참여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전시회는 소규모로 운영되었으며 전시형태도 설명서, 사진 등 평면적인 전시가 대부분이었다

농업부와 관련된 국내의 일반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환경 관련업체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참가대상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외국 의 경우 지난 ICID 회의에서 전시에 참여하였던 업체나 관계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시안내서와 메일 등을 발송하였다. 국내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업무와 관련이 많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부서를 통해 해당업체를 선정하여 접촉하였다. 또한 전시팀에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개최한 국제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으며, KOEX에서 개최된 각종 전시회에도 참석하여 국내·외의 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내의 경우 전시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많아 선별해야 했으나, 국외의 경우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에서 참가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최종 3개 업체만 등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일본의 KUBOTA는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테러사건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참가는 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대회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회의주제인 “농업, 물, 환경”과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전시를 유치하려고 계획하였다. 행사장 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20개의 부스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질적·양적인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물위주의 입체적

〈표-2〉 전시업체 현황

구분	부스(개)	전시업체
계	20	
특별전시	3	농업기반공사 3
외국업체	2	EBARA(일본) 1, CANCID(캐나다) 1
국내업체	15	창민 4, 명성 3, 태영 2, 자연과환경 2, C&H 1 대림 1, IS테크 1, 휴먼T 1

인 전시를 하였으며, 농업과 관련된 환경분야의 전시업체도 참여하여 국·내외 등록자의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나. 행사

서울대회는 회의기간이 6일이나 되고 회의나

행사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준비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았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을 크게 나누어 보면 행사 진행 인력의 선정 및 배치, 회의장·사무국·행사장 등의 배치 및 설비, 그리고 개·폐회식과 리셉션 및 만찬 등 친교행사의 준비였다. 그밖에 공식·비공식 행사가 계속하여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가 톱니바퀴처럼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하였다.

행사팀에서는 모든 행사의 철저한 시간관리와 원활한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행사 진행 종사자는 농업기반공사 직원 중에서

〈표-3〉 주요행사 요약

행사명	개최일시	참석인원	특기사항
개회식	9월 17일, 10:00	580 명	○ "농업·물·환경"을 이미지화한 식전 개막행사 ○ 뉴스매체 홍보 ○ 한·영 동시통역
폐회식	9월 20일, 16:00	300 명	○ 서울선언문 발표 ○ 뉴스매체 홍보 ○ 한·영 동시통역
환영 리셉션	9월 17일, 18:30	450 명	○ 각국 대표 초청 친교행사 ○ 부폐식 가든 리셉션
송별만찬 및 민속공연	9월 20일, 18:30	393 명	○ 대회장(농림부 장관) 초청 만찬 ○ 전통 민속 공연
KARICO Night	9월 21일, 19:00	330 명	○ 농업기반공사 사장 초청 만찬 ○ 전통 민속 공연
아시아 지역대표 오찬	9월 17일, 12:30	32 명	○ KCID 회장 초청 오찬 ○ 아시아지역 발전방향 모색
한·일대표 만찬	9월 16일, 18:30	36 명	○ KCID 회장 초청 오찬 ○ 일본과의 인적·기술교류 협의
한·대만대표 만찬	9월 18일, 20:00	26 명	○ KCID 회장 초청 오찬 ○ 대만과의 인적·기술교류 협의



64명을 선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모집하였는데 지원자가 예상외로 많았다. 선발된 35명의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외국에서 다년간 거주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다녀 온 학생들이어서, 외국인 안내 및 행사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공항 입·출국에서부터 등록, 안내, 회의장 정리 등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행사 진행의 주역이었던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총 인원은 630명에 달하였다.

9월 17일 10시, ICID 2001 서울대회의 조직위원장인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김동태 농림부장관, Bart Schultz ICID 회장을 비롯하여 모두 58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폐회식을 포함한 주요행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열거한 주요행사 외에 차기 ICID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 국가위원회와 2003년 개최국인 프랑스국가위원회는 각각 자국대회의 홍보를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여 관심있는 회의등록자들이 참석하였다.

#### 다. 기술견학 및 투어

국제회의에 있어서 학술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회의 주제와 관련된 기술견학과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온 동반자들을 위한 동반자 행사 그리고 회의 개최국의 주요 유적이거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번 ICID 2001 서울대회에서는 회의 주제인 “농업, 물, 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업현장을 기술견학지로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동반자 행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포스트 투어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3곳을 선정하였는데 각각의 일정에 농업기반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시찰을 혼합하여 시행하였다.

기술견학은 견학지로 선정된 농업기반공사 사업지구에서 시찰지 정비, 사업현황 설명자료 제

작 및 안내를 직접 담당하도록 준비하였다. 동반자 투어 및 포스트 투어는 여행사 주관으로 진행하되 시찰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기술견학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행사별 기본계획은 수송/견학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PCO를 통하여 시장조사를 한 후 행사별 가격 및 주관 여행사를 선정하였다.

기술견학 코스는 당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와 대호 친환경농업개발지구가 선정되어 안내서에 유인·배부되었으나, 제6차 조직위원회에서 충주 물관리자동화지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서울시내의 고궁관광과 쇼핑, 한국 전통가정 탐방, 도자기 엑스포 참가 및 민속촌 관광으로 구성하였다. 제2차 안내서에는 동반자 1인당 2개 행사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직위원회 협의를 거쳐 모든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참가자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일 코스 2일과 반일코스 2일로 나누어 일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초 동반자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인원은 약 30명이었으나, 미국의 비행기 테러사건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불참하게 되어 다소 인원이 줄어들었다. 코스별로 부인회에서 동행하여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일반 등록자도 투어비를 내고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회의 후 관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 설악산, 제주도로 결정하였으며, 기간도 2박 3일로 통일하고 참가비도 시장조사를 거쳐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각 코스에는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기술견학 코스를 포함시켜 우리나라 농업에 관한 이해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서울대회의 회의 일정이 끝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회의 후 관광에는 KCID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동행하여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농업기반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현장 방문 시

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참가자들을 안내하여 외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기술 견학지와 포스트 투어의 시찰지는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시찰지에 대한 시간계획, 지구별 안내자 지정, 현황판 제작, 안내 리플렛 제작, 시설물 정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으나 농업기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준비되었다. 특히 각 시찰지마다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였고 환영 현수막도 제작·계양하여 행사 참가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방문하여 볼만한 장소가 제한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자원은 매우 많을 것이다. 단순한 관광지 보다는 재래시장, 음식문화 체험, 전통가정 방문 등은 외국인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된다. 서울대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수정과 보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종교적·문화적 식생활을 고려하여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7. ICID 서울대회를 마치고

1996년 9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ICID 제47차 집행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던 사건은 KCID 설립 이후 최대의 경사였으며,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쾌거였다. 그 동안 KCID 회원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배수위원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관계배수 전문가, 관료 및 석학 540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유치한 것은 단순히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의미보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전통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매년 가뭄과 홍수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고도의 산업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고,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과 농업 문제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농업, 물, 환경”을 주제로 2001년 9월 16일부터 5일 동안 모두 152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던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와 워크숍은 아시아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배수, 관계시스템의 자동화, 수질 및 수자원 정책, 환경, 홍수조절, 간척 등 농지조성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쌀농사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회식 때 발표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은 ICID 2001 서울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집약하고 있다. 서울선언문은 인구와 식량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수자원 개발의 비전을 담고있으며, 쌀농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농업개발이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의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CID 서울대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실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기술력의 진흥으로 내실을 다지며 선진기

술과의 더욱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우리의 농업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또는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ICID 저널과 같은 국제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지금까지 개최한 국제회의로는 가장 대규모의 대회였고, 앞으로도 다시 유치하기 어려운 대회였던 만큼 위에서 열거한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아 있다. 외국인 참가자들로부터 역대 가장 짜임새 있게 조직된 대회였다는 찬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준비과정에서 목표하였던 북한의 관개배수기술자 초청이 무산되었던 점이나, 대회 5일전에 발생하였던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참가자 수가 예상보다 100명 정도 줄어들었고,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등록과 숙박 및 수송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ICID 서울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첫 아시아지역 회의가 병행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로, 이번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운영을 맡았던 조직위원회 실무자들에게는 국제협력 교류의 귀중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으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울대회 보다 더 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